

2021 대입 수능 한국사 해설, 분석, 요약 자료 연계 확인

1. 어김없이 1번으로 나온 선사시대 관련 문제였습니다. 보기 그림의 설명에서 펜석기라는 키워드를 보고 펜석기인 주먹도끼를 고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2. 지도를 주고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된 배경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작년 수능 2번과 똑같이 백제의 웅진 천도를 다루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 자료에서는 삼국시대와 관련해서는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요약 자료만 토대로 푸셨다면 찍으셨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다만 선지 중 흑치상지의 부흥운동은 자료에서 다뤘던 내용이므로 걸러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3. 자료를 보고 발해임을 인지한 후 발해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발해의 경우 올해 6월 시험에 한번 나온 후 이번 수능에 출제되었습니다. 제 자료 해설 코멘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사 총정리 인강들에서 거의 안다룰만큼 발해는 평가원 시험에서 흔하게 나오는 주제는 아니었고, 선지들도 비교적 가까운 시대의 내용들로 이뤄졌기 때문에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요약 자료에 발해에 대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해동성국을 보고 발해라는 것은 아실 수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답이었던 3성 6부는 제가 정리 자료에 담지 않았던 내용이네요..
4. 후삼국 통일 전후에 대한 자료를 주고 태조 왕건임을 인지한 후 태조의 업적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평가원 시험마다 고려 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올해는 두 문제가 출제되었고, 한 문제가 태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작년 수능에서도 4번에 왕건의 업적을 묻는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되었네요. 자료에서는 '후삼국을 통일', '역분전' 등의 키워드에서 고려 태조에 관한 내용임을 캐치하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제 요약 자료에서 태조의 키워드로 후삼국 통일과 정답 선지였던 사심관 제도를 모두 다뤘기 때문에 충실히 자료를 보셨다면 맞출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5. 5번 문제는 고려시대 자주 의식이 반영된 역사서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고려의 역사서도 발해처럼 평가원 한국사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는 소재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발해와 달리 올해 6,9월 시험에서도 문제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출제 조짐을 굳이 찾아보자면 수능에서 선지로 나온 박은식의 한국통사가 6월에 문제로 다뤄지긴 했습니다만 크게 체감이 될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책의 이름에서 '조선', '한국'을 발견하여 걸러내셨다면 맞출 확률을 높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6. 4번 문제에 이어 출제된 또 하나의 고려 왕 문제입니다. 자료를 주고 공민왕임을 인지한 후 공민왕 재위 기간동안의 사실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쌍성총관부'에서 공민왕임을 캐치하셔야 하는 사료였습니다. 제 자료에서 공민왕과 쌍성총관부를 다뤘습니다만 전민변정도감을 빼먹는 중대한 미스가 있었습니다.. 다만 회사령이나 이자겸의 난은 정리 자료에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두 선지는 걸러낼 수 있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7. 세종 시대에 편찬된 책들을 보고 세종임을 파악하여 세종의 업적을 골라내는 문제였습니다. 제시된 책들이 낯설 수도 있지만 사실 세종임을 몰랐더라도 풀 수 있으셨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4대 왕'이라고 했으니 조선시대 내용을 찾아야 하는데, '우산국'은 '독도는 우리 땅' 노래만 알고 계신다면 '지증왕 13년', '신라 장군 이사부'를 떠올리셔서 우산국이 조선시대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조선의 4번째 임금이 활동하던 시대에 '대한국'이라는 말도 잘 안어울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인으로서의 느낌'만으로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제 자료에서 세종과 관련하여 키워드로 '칠정산', '의정부' 등을 다뤘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도 무난히 맞추셨을 것입니다.
8. 자료를 통해 대동법임을 파악하고 대동법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대동법은 균역법과 함께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고, 올해 6월에도 균역법과 함께 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광해군', '경기도에 시범

실시' 등도 힌트가 될 수 있지만 '방납'이 결정적인 힌트였습니다. 제 자료에서도 다뤘던 대동법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인 '방납'과 '공인'을 알고 계셨다면 금방 맞추셨을 겁니다.

9. 사료를 보고 사료 속 상황이 조선 후기 농민 봉기가 발생하는 상황임을 알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사료로는 진주지역에서 시작된 임술농민봉기에 대한 설명만이 제시되었지만 특정 봉기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이 봉기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문제라 상당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보더라도 진주민 수만 명이 가옥을 불사르고, 백성들이 항의하고,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수령을 포위한다는 부분에서 농민 봉기임을 알 수 있죠. 국어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10. 제시된 그림의 이야기가 조선 후기 경제에 관한 것임을 알고 조선 후기 사회모습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통공 정책', '금난전권', '장시', '시전' 등이 그림에서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림에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셨어도 선지들의 세대차이가 극심하게 난 문제라서 답을 찾을 수 있으셨을 겁니다. 지게지고 한복입은 사람들 밑에 올림픽과 경부고속도로라니요.. 제 자료에서는 조선 왕들의 업적 부분에서 정조의 키워드로 '금난전권'을 넣어두었고 단락을 구분하여 정조가 조선 후기 왕임을 표시해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움이 되셨을 수 있겠습니다.
11. 사료를 보고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문제임을 인지한 후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올해 6월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사건 순서를 묻는 방식으로 출제되었으나 수능에서는 그저 관련된 내용을 고르기만 하는 문제로 바뀌면서 더 쉬워졌습니다. '전봉준'이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였을 것이고 '갑오년', '일본'도 힌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사료에서 밑줄 친 '창의군'이 '일본 도적놈'에 적대적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아래 선지를 보면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는 친절한 설명이 있어서 국어 능력에 의존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제 자료에서 동학농민운동의 키워드로 '우금치'를 담았기 때문에 '전봉준'을 보고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것만 아셨다면 맞출 수 있으셨을 겁니다.
12. 자료를 통해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문제임을 알고 그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도 앞선 몇몇 주제들처럼 평가원 시험에 잘 만나와서 인강들에서 잘 안다루는 주제였습니다. 올해 6월에 문제로 출제되고 수능에 출제된 것입니다. '나랏빛을 갠 데'라는 내용에서 국채보상운동임을 캐치하셔야 합니다. 낯선 주제고 이 문제는 선지들도 대체로 가까운 시대의 내용들로 채워져서 다소 어렵게 느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료에서 유일하게 내용을 중복해서 적으면서 강조했던 부분이었는데 기쁘게도 적중했습니다. 개화기 흐름 부분에서 국채보상운동의 키워드로 정답 선지였던 '대한매일신보'를 제시하고 또 대한매일신보의 키워드로 국채보상운동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 자료를 잘 보셨다면 맞추셨을 겁니다.
13. 사료를 통해 을사늑약에 관한 것임을 인지하고 을사늑약 체결 전후 사건들의 순서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을사늑약과 정미7조약은 워낙 자주 나오는 주제고 6월과 9월에도 각각 문제로 나왔는데 올해 수능에는 을사늑약이 나왔습니다. '통감',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 '협박' 등의 키워드에서 을사조약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셔야 했습니다. 제 자료에서는 을사조약 자체에 대한 내용과 사건들의 순서를 모두 다뤘기 때문에 자료를 보셨다면 무난히 맞출 수 있으셨을 겁니다.
14. 제시된 자료가 3.1운동에 관한 것임을 알고 그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3.1운동이야 워낙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올해 문제에서는 임시정부와 연결지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독립 선언', '만세', '파리강화회의', '일손의 민족 자결', '기미년 3월' 등이 키워드였습니다. 3.1운동이 일제 통치방식이 문화통치로 전환되는 계기라는 점은 제 정리자료에서 다뤘습니다.
15. (가), (나) 사료를 통해 각 사건이 6.10 만세운동과 광주학생항일운동임을 알고 그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원래 자주 출제되는 주제인 신간회를 다루는 문제이지만 사건 순서를 묻는 문제로 출제되어서 단순히 사건 순서를 앞으로 써 답을 맞추는 방법과 신간회의 결성 배경과 활동을 앞으로 써 사건의 연관성을 통해 답을 맞추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짝어서 맞춘 경우가 아니라면 완전히 알고 풀었던 일부만 알아서 끼워맞춰 풀었던 수험생 대부분이 후자의 방법으로 풀었을 것입니다. ‘남북 협상’이라는 뜬금없는 선지가 하나 있긴 하지만 한국사 노베이스였다면 맞추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제 자료에서는 신간회의 키워드로 ‘광주학생항일운동’, ‘민족주의+사회주의’를 알려드렸습니다.

16. 사료에서 이야기하는 ‘사건’이 이봉창의 의거임을 알고, 이봉창이 속해있었던 한민애국단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김구가 단원을 보내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이라는 부분에서 ‘단원’이 이봉창임을 알고 이봉창이 속한 단체인 한민애국단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다른 문제들에 비해 제시된 자료부터 답까지 연결된 정보의 고리가 하나 더 많은 문제이지만 이봉창과 윤봉길이 활약한 한민애국단은 비교적 잘 알려진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비해 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료에서 이야기하는 사건이 이봉창 의거라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7. 제시된 자료와 설명에서 이야기하는 시기가 일제강점기 중 1930~40년대에 해당하는 시기임을 알고 당시의 정책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별 정책과 사회상은 작년 수능과 올해 두 번의 평가원 시험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정리 자료에서 이 문제 유형을 대비하는 시대별 내용 정리를 해드렸고, 해설 코멘트 자료에서 1930,40년대가 수능에 출제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적중했습니다. 그림에서 소개하는 자료에서는 ‘지원병’, ‘배급’, ‘모조리 굶어 갔고요’ 등이 힌트가 될 수 있고 부가된 설명에서는 ‘중일전쟁 이후’, ‘국가 총동원법’, ‘수탈’ 등이 중요한 힌트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정도의 느낌만 있어도 아마 황국신민서사 암송 선지를 고르셨을 것 같긴 합니다.
18. 자료의 (가)가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라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회의’라는 점이 유일한 힌트였습니다. 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태로 보셨다면 개성공단 선지 정도는 걸러내셨겠지만 그 외의 선지들에 대해서는 감을 잘 못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사건들의 내용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순서에 집중하여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19. 그림에서 설명하는 민주화 운동이 5.18 민주화운동임을 파악하고 현대사 사건들의 순서를 아셨다면 풀 수 있으셨을 문제입니다. ‘광주’라는 결정적인 키워드가 설명에 등장하고 ‘계엄군’, ‘스스로 무장’ 등도 힌트가 되므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문제는 사건들의 대략적인 순서를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역사 교육과정상 현대사는 초중고를 거치면서 계속 배웠어도 비교적 낯설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능이나 수능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내신, 한능검을 공부하지 않은 노베이스 수험생이라면 맞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 자료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의 연도를 알려드린 했지만 그 외 사건들의 연도나 내용을 알려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셨겠습니다.
20. 연설문의 내용을 통해 연설이 행해진 정부가 노태우 정부임을 알고 노태우 정부 시기 이루어진 정책을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키워드는 ‘유엔 동시 가입’, ‘한반도의 비핵화’가 결정적입니다. 그동안 7.4 남북 공동선언과 6.15 남북공동선언이 통일정책 문제의 답으로 오랫동안 출제되었지만 정말 갑작스럽게 남북 기본합의서가 등장했습니다. 문제 풀면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적중한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ㅋㅋ 하지만 어떤 정부인지 모르더라도 너무 옛날스러운(?) 선지들을 거르면 ‘남북’이 들어있는 선지가 하나 남게 되죠. 너무 시대 격차가 큰 선지들을 넣는 바람에 난이도가 확 떨어졌고, 수능이 끝난 후 수능 한국사 난이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